

## 불이(不二) 사상에 영향을 받은 전통복식의 조형미

서 봉 하\* · 김 민 자\*\*

용인송담대학 스타일리스트과 조교수\*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The Aesthetics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Affected by Non-Dualistic Theory of Buddhism

Bong-Ha Seo\* · Min-Ja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tylist, Yong-in Songdam Colleg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2. 9 투고)

#### ABSTRACT

Religion affects all the dimension of human beings, and at the same time it forms one dimension of human beings. Costume is considered as a result that reflects the phases of the time and the characteristics of a wearer. Costume, also, has been influenced by religion that has led one's belief, social spirit and culture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Eastern aesthetics has expanded the area of thoughts with the concepts that originated from Buddhism, Taoism, and Confucianism. Among the concepts, Non-Dualistic Theory is the core idea of Buddhism. The theory contains the meaning that one should not lean to one side between existence and nonexistence and should not be obsessed with the center. It was the most powerful Buddhistic idea that had an influence on Asian aesthetics. Korean traditional costume is not an exception.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that it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religious principle and traditional custom through mainly using documentary records.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influenced by Non-Dualistic Theory can be summarized as non-structure like, indeterminate forms, amorphousness and anti-decoration such as plainness, temperance and achromatic color. Aesthetic value was expressed through 'the aesthetic of emptiness', 'the aesthetic of hiding', and 'the aesthetic of nature'.

Although the appearance of a religious symbol can change, an essential element in religion lasts as human society remains. Although our clothing culture has converted to western style, Korean traditional aesthetics is placed deep inside of the Koreans' spirit and has a consistent effect on our overall culture of clothing.

Key words: non-dualistic theory(불이사상), Buddhism(불교), traditional costume(전통복식), a beauty of vacancy(비움의 미), a beauty of concealment(감춤의 미), a beauty of nature(자연의 미)

## I. 서론

종교는 인간 존재의 한 차원으로써 인간 존재 전역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 과학, 윤리 등 인간 문화는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 닿을 때에는 종교적 차원과 맞부딪치게 될 수밖에 없다. 틸리히(P. Tillich)는 “종교는 문화의 정수(精髓)이며 문화는 종교의 표현”이라고 하였다.<sup>1)</sup> 종교는 인간 생활의 어떤 한 부분으로 생각하거나, 없어도 되는 생활영역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인간 생활 전체가 ‘종교적’이라는 것이다.<sup>2)</sup>

복식은 물질문화의 측면으로써 실용적이며 도구적인 속성과, 정신문화의 측면으로써 표현적인 속성으로 그 기능을 정의 내릴 수 있다. 복식의 도구적 기능은 목적 지향적인 행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복식의 사용을 의미한다. 표현적 기능이란 복식이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과 의사전달적인 측면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복식에는 한 개인, 사회, 시대의 정신이나 기질, 성향이나 정서 가치 내지는 신념 등이 포함되며 특유한 미적 감각이 전달된다.<sup>3)</sup> 따라서 복식은 착용자의 특성과 그 시대의 시대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개인의 신념, 사회정신, 문화 등에 영향력을 끼쳐 온 종교는 각 민족의 민속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복식에 표현 되어 왔다.

동양 미학은 도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 유교의 인의예악(仁義禮樂) 사상, 불교의 제법불인(諸法不仁) 사상에서 형성된 개념들로 사고 영역을 넓혔다. 동양 미학은 이 삼교사상(三教思想)이 형성한 철학에서 미적 개념들을 받아 형성되었다.<sup>4)</sup> 그 중 한국의 대표적 종교인 불교의 중심개념은 연기(緣起)에 있으며,<sup>5)</sup> 그 연기론의 판단이 내린 진리를 ‘불이(不二)’라고 한다.<sup>6)</sup> 유와 무 양극단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가운데에도 집착하지 않는 불이 사상은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이다.<sup>7)</sup> 불이 사상은 동양의 미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불교 사상이며, 한국 전통복식 양식의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본 연구에서는 불교의 중심 개념인 연기의 불이 사상이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파 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미의식과 전통복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또한 불이사상의 영향을 받은 전통 복식의 조형적 특징과 내재적인 미적가치에 대한 고찰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한다. 연구는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불이 사상과 불이의 미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불이 사상의 개념과 상통하는 전통복식들을 토대로 조형적 특성들과 미적가치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로는 유물과 문헌을 중심으로 불교복식을 비롯한 한국 종교복식을 고찰한 임영자<sup>8)</sup>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종교 이념과 전통복식과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복식의 조형미와 내재된 미적가치를 고찰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이 연구는 첫째, 종교적인 이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복식의 형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과 불교의 불이설에 대하여 고찰하고, 한국의 전통 미학에 큰 영향을 미친 불이설의 미학적 특징에 대하여 규명하며, 둘째, 불교의 불이사상에 영향 받은 한국 전통복식의 조형적 특징과 내재된 미적 가치를 규명한다. 셋째, 서양의 복식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한국 전통복식의 본질적 특징을 밝힘으로서 한국 복식 문화의 고유한 특수성 및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 II. 불교의 불이 사상에 대한 개념고찰

해밀턴(J. A. Hamilton)의 총상모델<sup>9)</sup> 이론에 따르면 양식(style)이란 개개의 인간과 사회, 민족, 시대에 따른 특징적인 행동의 수단, 생활의 수단, 집합적 정신의 표현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문화의 형성방식을 뜻한다. 복식의 양식이란 이 문화체계의 일부로서 특정 문화의 특징을 명백히 나타낸다는 점에서 독특하나, 문화를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일반적인 보편성을 띠고 있다. 해밀턴은 복식이란 세 가지의 기본적이고 서로 구별되는 문화구성 요소, 즉 ‘기술(technology)’, ‘사회구조(social structure)’, ‘이데올로기(ideology)’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여기서 기술이란 물질적 문화를, 사회구조는 사회적 행동을, 이데올로기란 가치, 철학, 태도, 종교적 신념, 정서 등을 일컫는다.<sup>10)</sup> 이러한 해밀턴의 이론은 우리의 전통복식에도 적용된다. 방직·방직 등의 기술 발달과 각 시대의 사회구조는 복식의 양식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토속신앙과 불교·도교·유교 등의 종교적 이념은 우리 민족의 가치관, 정서, 미의식 등에 영향을 미쳐왔다.

종교문화는 그 나라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초석이 되며, 종교를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의 심성과 정신세계와 문화를 엿볼 수 있다.<sup>11)</sup> 종교는 한 개인의 세계관이나 우주관은 물론, 한 집단이나 사회의 생활양식과 문화 체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특히 372년에 전파된 불교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한국의 주도적인 종교로 자리하면서 한국에 전파된 이후 160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의 대표적 종교로 자리하였다. 따라서 불교 사상을 제외하고 한국의 미를 운위하는 것은, 마치 기독교를 제외하고 서양의 미의식을 논하는 것과 같다. 우리 민족의 미의식 형성과 복식의 양식에 있어서 불교의 이념은 그 어느 것보다도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종교 중 불교의 이념적 측면을 살펴보고 불이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한국의 불교

불교에서는 창조주란 개념이 없다. 또 유일하고 전능한 신이란 개념도 없다. 불교의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 아니며 신의 몸도 아니다. 우주는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사건들의 연속일 뿐이며 이 모든 것은 다 덧없는 것들이다.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거나 불변하는 것은 없으며 우주의 핵심은 공(空)이다. 이는 성인이나 부처가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이르렀을 때 볼 수 있는 것이다. 불교인에게 우주는 일종의 신기루에 불과하다. 우주가 견고하다거나 영원하다거나 하는 생각은 헛된 생각이다. 내가 아무리 윤회(輪廻)를 거듭하며 삶을 살아간다 해도, 내 안에도 역시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명상 수행을 통해 내적인 통찰

을 얻고 이로써 근본적으로 비어 있고 덧없는 사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해야만 해탈할 수 있다.<sup>12)</sup>

우리나라에 불교, 도교 및 유교가 들어와 기존의 무속신앙과 공존하게 되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시작되었으나,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불교가 주도적인 종교였다.<sup>13)</sup>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시대에 따라 다양한 갈등도 표출되었고, 불교와 민간신앙이 마찰을 일으키며 융화되어 가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숭불정책을 폈으며, 조선시대에는 유교와 불교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불교가 탄압되기도 하였었다. 불교는 우리 종교경험 속에 있지 않았던 '다른 우주'인 열반(涅槃)을 제시해 주었다. 불교의 열반은 '막연한' 공간을 정토(淨土)로 구체화하고, 그곳으로의 왕생(往生) 가능성을 현실적인 것으로 주장해 준 것이었다. 그러므로 불교는 한국인이 가지는 초월의 모티브, 곧 윤회된 삶의 차원을 넘어서려는 의지에 대한 공간적인 해답을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불교의 현실적 기능은 불교의 어떤 교리적 서술 보다 한국인의 일상적인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sup>14)</sup> 불교는 철학적인 깨달음의 종교이며, 동양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미는 불교의 철학적 사유와 미적 개념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 2. 불이 사상(不二思想)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저것이 없어진다.” 이러한 관점이 바로 불가의 연기론(緣起論)이다. 모든 것은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체도 아니며, 서로 의존한 조건에 따라 생멸(生滅)한다고 보는 것이 연기론의 발상이며 판단이다. 그리고 연기론의 판단이 내린 진리를 불이라고 한다.<sup>15)</sup>

불교사상의 불이는 동양미학의 미적 판단을 독특하게 하는 발상으로, 예술의 존재를 해석할 때 이원상대(二元相對)의 미적인식을 부정하여, 주객(主客)의 분별, 진위(眞僞)의 분별, 미추(美醜)의 분별, 형식과 내용의 분별, 가치와 무가치의 분별 등을 부정한다. 불이는 중도론(中道論)으로 통하는데 중도론

은 이원상대의 대립이 아니라 대립을 불러오는 이원적 사고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관점이다. 그러므로 불이는 분별의 논리가 극단적인 하나의 편견이며 오류라는 인식을 동양미학에 안겨 주게 된다. 이러한 불이의 관점은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연동화 사상과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천인합일 사상 그리고 초 우주적인 공간성까지도 통하는 개념이다. 불교사상은 인과관계로 생성 소멸되는 차원을 넘어 그러한 생성 소멸의 무상함이 없는 경지를 깨우치라고 요구한다. 그러한 깨우침의 경지를 불교는 공(空)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불이는 공 사상의 한 해석인 셈이다.<sup>16)</sup>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란 것은 아직 형체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것이 못되나 불교의 본질에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구체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형체를 취한다는 것은 오히려 추상적인 것이 됨을 뜻한다. 공이란 것은 초월적이며 내재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인간은 형체가 있는 것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한다. 형체가 없으면 이해되지 않으므로 지(智)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무상(無相)이 유상(有相)이 되는 것이다.<sup>17)</sup> 즉, '형(形)의 크고 작음이 어디에 있고, 색(色)의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이 불교의 공사상이다. 여기에 이르러 번뇌가 사라지고, 정(靜)과 동(動)이 없는 무사무난(無事無難)의 자리가 있다. '아름다움을 찾으면 아름다움을 얻지 못하고, 아름다움을 찾지 않으니 그것이 곧 아름다움이

다.'라는 것이 불교미학의 터전이다.<sup>18)</sup>

공은 유무불이(有無不二)의 상태를 의미한다. 유무불이는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님을 말한다. 이것을 『반야심경』에서는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다.(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卽是空, 空卽是色)”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sup>19)</sup> 색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형체와 물질을 말하는 것이다.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서도 유무불이라는 사상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원효는 “유무의 두 치우침을 떠났으며 중간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sup>20)</sup>라고 말한다. 불이와 공의 유무불이사상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사상임은 수많은 선사들의 말과 문헌에 나타나 있다.

불이의 중도사상은 생(生)과 멸(滅), 성(聖)과 속(俗), 생사(生死)와 열반(涅槃), 번뇌(煩惱)와 보리(菩提), 동일성과 차별성, 그리고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반야지의 체득은 인간에게 새로운 세계와 생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참된 열반은 이원적 사유를 넘어서는데 있다. 본래 번뇌도 열반도 그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생사윤회와 열반을 분별하지 않은 것이 불이가 가지는 진정한 지혜의 의미이다.<sup>21)</sup> 불이는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생사가 둘이 아니며, 유무 또한 서로 다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가 둘이 아니라는 절대 평등의 경지를 드러내는 말이다.<sup>22)</sup>

불이사상은 불교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사상이 아니다. 동양의 또 다른 심원한 사상 중 하나인 도

<표 1> 불이 사상의 미학적 개념

핵심 내용	미학적 개념
이원 상대의 미적가치 부정 (중도론)	분별 논리는 극단적 편견이며 오류이다. 주객, 진위, 미추 등의 분별에 의한 가치 판단 거부. 자연과 나는 둘이 아니라는 자연 동화, 천인합일 사상, 우주와 나는 둘이 아니라는 초 우주적 공간성.
유무불이 (공사상)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다. 있음과 없음이 다르지 않다. 형체를 취하지 않은 상태는 오히려 구체적인 것이며, 형체를 취한다는 것은 오히려 추상적. 아름다움을 찾으면 얻지 못하고, 아름다움을 찾지 않으면 그것이 곧 아름다움이라는 초월성과 내재성.

가철학도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노자는 곳곳에서 유와 무, 어려움과 쉬움, 길고 짧음, 높고 낮음, 앞과 뒤, 화와 복, 바른 것과 기이한 것 등과 같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서로 의지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세상 만물이 근원적으로 불이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23)</sup> 만물의 본질과 그 근원에 대해 사유했던 동서양의 여러 사상들은 그 본질과 근원적인 모습이 유무불이라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 Ⅲ. 불이 사상의 영향을 받은 전통복식

불이 사상은 불교의 어떤 사상보다도 동아시아 미술 양식의 조형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앞의 제 II장에서 고찰을 바탕으로 불이 사상의 미학적 개념들을 추출해 보면 <표 1>과 같이 '이원상대의 미적가치를 부정'하는 중도론의 개념과 '유와 무가 다르지 않다'는 공사상의 개념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1. 중도론

중도론으로 통하는 불이는 이원적 사고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관점이다.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극(極)이며,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극(極)이다. 여기서 극이란 편견과 오류의 극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불이는 분별의 논리가 극단적 편견이며 오류라는 미학적 개념을 가진다.<sup>24)</sup> 생과 멸, 성과 속, 생사와 열반, 번뇌와 보리 등 핵심적 이념의 분별과 가치판단까지도 거부하는 중도론은 미와 추의 분별도 부정한다. 이러한 이념은 복식에 의한 형태의 구체화를 거부하고 복식을 검소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가사를 비롯한 승려의 복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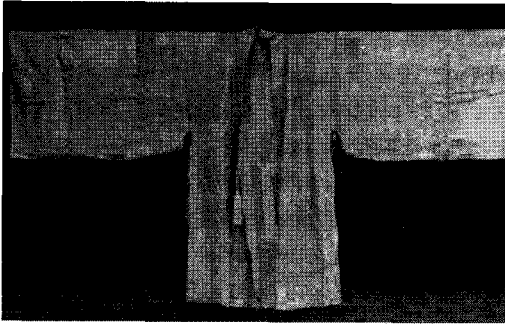
<그림 1>의 장삼은 가치판단을 초월한 불교이념이 잘 드러나 있는 불교복식으로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지 않고, 미추를 분별하지 않으므로 기교를 부리지 않았으며, 검소하고 절제된 형태를 가지고 있

다. <그림 2>의 회색 납의도 색상과 형태면에서 단조롭고, 여러번 기워서 입은 검소함의 승려복이다. 승려의 법복인 가사(袈裟)는 원래 쓰고 버린 누더기를 주워서 기운 옷이며, 원어 Kasaya의 본뜻이 때가 묻지 않은 정결한 옷이다. 가사의 정신은 사치하고 값비싼 옷이 아니라 검소하고 깨끗이 입는 옷이다.<sup>25)</sup> 옷은 향락의 수단이 아니라 소중한 몸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스님이 입는 가사는 사람들이 버린 헌옷을 주워 빨아서 꿰매어 지은 옷으로 무구의(無垢衣), 복전의(福田衣), 공덕의(功德衣), 분소의(糞小衣)라고 부른다. 분소의는 똥을 닦은 형질을 주워서 108번 기워 입은 옷이라는 뜻으로 부른 명칭이라 한다. 이러한 가사는 곧 수행자가 사치스런 마음을 없애고 탐심을 여의기 위한 것이다.<sup>26)</sup> 불교에서는 천자(天子)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의복제도에 귀천이 없다고 하였다. 삼국시대부터 우리민족에게 가장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착용되어진 두루마기나 도포는 불교의 법복과 그 형태와 구조가 흡사하며 미추의 분별을 비롯한 분별에 의한 가치의 판단을 거부하는 불교의 사상과 연관이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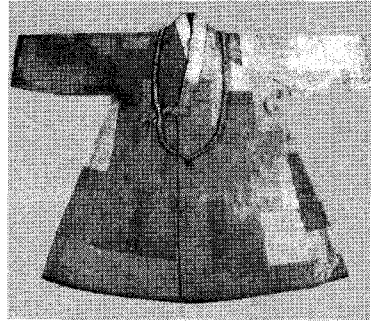
중도론의 분별을 거부하는 개념은 복식을 통한 남녀 구분에도 모호성을 띠게 하였다.

사적 공간에서 여성은 치마를 착용하고 남성은 바지를 착용하여 복식을 통한 성의 구분이 있었으나, 공적 공간에서는 이러한 성적 특성을 감추고자 남녀 모두 똑같은 형식의 두루마기를 비롯한 포(袍)를 착용하였다.

이원상대의 미적가치를 부정하는 중도론은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개념과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개념을 갖는다.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서양의 이념과 달리 불교를 비롯한 동양의 여러 이념들은 자연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였으며 그러한 이념은 한국의 전통복식에도 표현되어 왔다. 또한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개념도 복식을 통해 초 우주적 공간의 형태로 표현되어 왔다. <그림 4>의 치마와 <그림 5>의 중치막은 무정형의 비구조성, 풍성한 실루엣과 드레이퍼리로 가변성의 자연미와 초 우주적인 공간 구조를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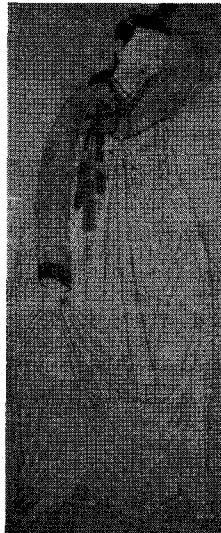
<그림 1> 매진장복사에 전래되는 장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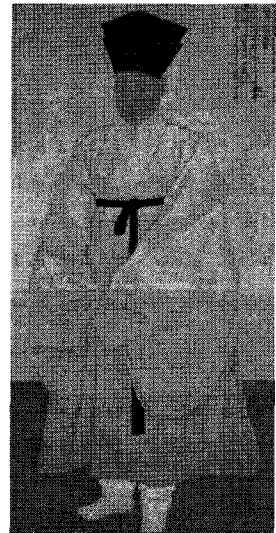
<그림 2> 회색 남의



<그림 3> 삼베 도포



<그림 4> 치마저고리



<그림 5> 중치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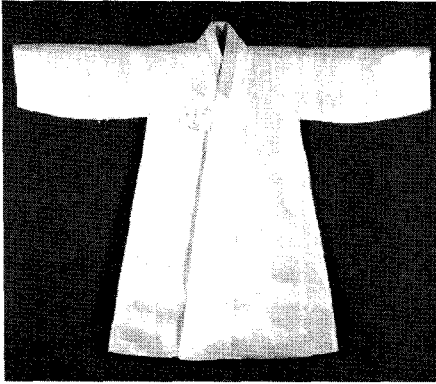
고 있다. 또한 가공하지 않은 자연의 소재와 색채를 주로 사용하였다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민족이 백의(白衣)를 호상(好尙)하였던 것도 이러한 불이의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

## 2. 공사상

유와 무가 다르지 않다는 공사상은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의 여덟 자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색은 서구적 개념의 컬러(color)가 아닌 물질이나 형체를 말하는 것이다.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라는 개념은 검소함과

절제의 초월적 사고로서 반 꾸밈의 전통복식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전통복식 중 일부는 매우 화려한 장식과 문양 그리고 색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소수의 상류계층과 무당, 기생 등의 특수 직업인에 국한된 것이었으며, 서민들의 경우에는 혼례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식이 크게 제한된 검소한 복식을 하였다. 상류층의 경우에도 장식이 제한된 소색의 복식을 평거복(平居服)으로 착용하였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반 꾸밈의 비 장식성은 불교의 불이 사상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공사상과 유사한 개념인 도교의 무위(無爲)는 '비움은 곧 그득함'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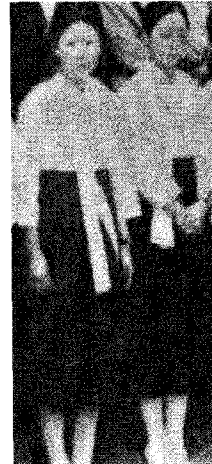
〈그림 6〉 두루마기



〈그림 7〉 신윤복의月下情人圖



〈그림 8〉 1900년대 숭전대학생



〈그림 9〉 1930년대 교복

또한 유교의 절제론도 전통복식의 절제된 반 꾸밈에 영향을 주었다. 〈그림 6〉의 밝은 소색 두루마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착용하였던 것인데, 꾸미지 않은 한국 전통복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복식은 '아름다움을 찾으면 아름다움을 얻지 못하고, 아름다움을 찾지 않으면 그것이 곧 아름다움이다'라는 공사상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아름다움은 드러내지 않은 내재적인 것이고 초월적인 것이다.

또한 유무불이의 공사상은 '형체를 취하지 않는 상태는 오히려 구체적인 것이며, 형체를 취한다는 것은 오히려 추상적이다'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무정형의 풍성함과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 동양복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림 7〉의 월하정인도에 나오는 복식을 보면, 남녀의 복식이 모두 매우 풍성하여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며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 복식의 이러한 특징은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는 서양의 복식과 대조를 이루는데 동서양 각각의 사상적 이념과 미의식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불이의 사상과 중도, 공사상 등은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그 미학적 개념 역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심지어는 오랜 세월동안 공존하여 온 불교, 도교, 그

리고 유교의 사상은 상당부분 습합(習合)이 되어 그 이념적 가치가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불이 사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인 불교의 여러 이념 중에서 동양의 미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념이다. 그러한 불이의 중도와 공사상에 영향을 받은 복식의 특징은 '검소함과 깨끗함', '감춤과 무정형의 비구조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전통 복식의 특징은 개화기의 복식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그림 8>의 1900년대 대학생들이 흑색의 두루마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그림 9>의 1930년대의 여학생 교복이 흑색의 치마에 흰색 저고리이다. 두 그림 모두 검소하고 절제된 복식으로 반꾸밈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정형의 비구조적인 복식으로 인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IV. 불이 사상의 영향을 받은 전통복식의 미적가치

앞의 제 III장에서 고찰한 불교의 불이설에서 영향을 받은 한국 전통복식의 조형적 특징은 '무정형의 비구조성' 그리고 '간소함과 절제의 형식'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이원상대의 미적가치를 부정하여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는 것과 풍성한 초 공간적 구조, 형태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추상적이라는 개념 등은 전통복식의 형식이 '무정형의 비구조성'을 띠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미추의 분별을 부정한 검소하고 절제된 복식 형식과 가공하지 않은 소재와 자연 그대로의 색상, 유와 무가 다르지 않음으로 인한 반꾸밈과 감성의 절제 등은 '간소함과 절제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불이 사상에 영향을 받아 '무정형의 비구조성'을 띠고 '간소함과 절제의 형식'을 가지는 전통복식은 그 조형적 특징이 뚜렷한 만큼 매우 분명한 미적가치를 나타낸다. 그것은 한국 전통복식의 주요한 미적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비움의 미', '감춤의 미', '자연의 미'이다.

#### 1. 비움의 미

비움의 미는 이원상대의 대립이 아니라 대립을 불러오는 이원적 사고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관점을 가진 불이의 중도론과, 분별과 대립을 넘어선 허(虛)의 사상으로 형체를 취하지 않는다는 불교의 공(空)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미적가치이다.

비움의 미는 <표 2>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이 사상의 미학적 개념에 영향을 받은 복식의 특징 대부분에서 나타난다. 구체적인 형태를 부정하여 형태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한 무정형의 복식과 비대칭성, 우주와의 교류를 위해 비워놓는 허공의 개념, 풍성한 드레이퍼리의 특징 등에서 비움의 미가 나타난다. 또한 감성의 절제로 인한 탈기교의 비장식성, 가공하지 않은 소재를 비롯한 무표색의 복식 등에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단지 불교복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치마, 두루마기 등 우리 전통 복식이 가지는 무정형의 비구조적 특징과 반꾸밈의 특징, 소재의 복식 등이 모두 이러한 비움의 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불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동양적 가치에서의 '비움'이란, 억제되고 축소되어지는 대상이 아니며, 존재하던 어떤 것을 비워버리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는 의미의 '비움'이다. 이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며 중간 또한 아니라는 중도론과,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라는 공사상과도 상통하는 동양 미학의 독특한 개념이다.

#### 2. 감춤의 미

한국의 복식에 나타나는 감춤의 미는 유교의 금욕주의적인 절제론과 예교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유교사상은 '예술적 즐거움의 충만은 즐거움의 절제와 융합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여 인간의 덕성은 예술적인 동시에 도덕적임을 인식하게 하였다. 불교의 사상에서도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연동화의 개념과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초우주적 공간성의 개념에 의하여 인체를 드러내지 않고 감싸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복식 양식에



서 감춤의 미가 나타난다.

또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는 구체적인 것이 못되지만 불교의 본질에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구체적인 것이 된다는 공사상도 감춤의 미를 나타나게 한다. 형태를 취하지 않는 것은 서구의 의복처럼 인체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인체를 감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공사상은 인체를 드러내지 않고 크게 감싸서 감추는 복식의 형식에 관계되어 있다. 이러한 복식들은 남녀 간의 차이가 적고 인체를 감춤으로서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기도 한다. 형태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체를 드러내지 않고 결국 감춤의 미로 나타나는 복식의 예는 <그림 5>의 중치막과 <그림 7>의 쓰개와 도포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감춤의 미는 비구조적인 형태와 드레이퍼리로 인체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전체형의 풍성한 전통복식에서 엿볼 수 있으며, 겹쳐 입는 전통과 인격미를 중시한 복식문화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인체를 크게 감싸서 은폐하여 감춤의 미가 나타나는 복식들은 폐쇄형과 명료성의 특징을 가진다.

### 3. 자연의 미

한국의 전통복식에 나타나는 자연의 미는 '사람은 자연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으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는 도교의 무위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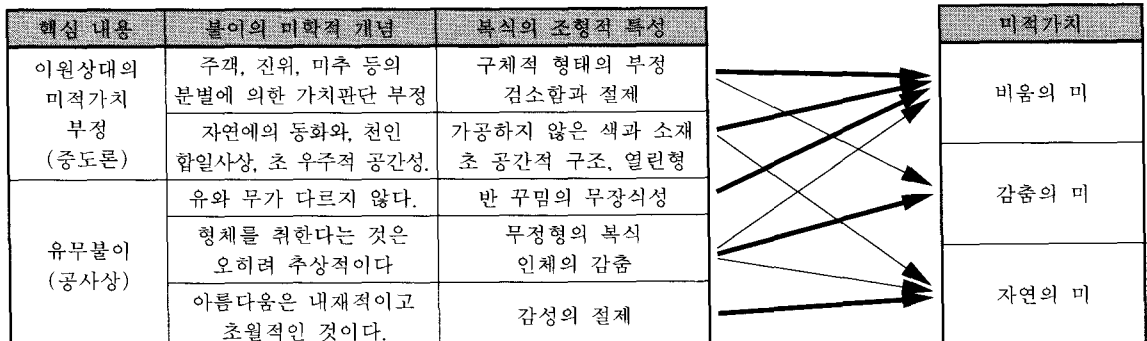
론과 천인합일의 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불이설 역시 전통복식의 자연의 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불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인체를 풍성하게 감싸는 무정형의 비구조적 복식은 비대칭과 드레이퍼리를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비대칭과 드레이퍼리의 특징들은 전통복식에서 자연의 미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4>에 보이는 비대칭의 저고리 여밈과, 치마의 풍성한 드레이퍼리는 우리 전통복식에 나타난 자연의 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추의 분별을 거부하는 중도론에 기초한 검소함과 감성의 절제라는 공사상의 영향으로 한국의 전통복식에 자연의 미가 표현되었다. 이러한 자연의 미는 인위적인 장식을 배제한 반 꾸밈의 무장식성,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색인 소색과 자연의 소재를 사용한 복식 등에서 나타난다.

### 4. 연구 결과 및 논의

우리의 전통 미학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의 불이 사상은 우리의 전통 복식 형성에 깊게 관여되어 있다. 불이의 미학적 개념은 이원상대의 미적가치를 부정하는 중도론과 유와 무가 다르지 않다는 공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통복식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은 구체적인 형태의 부정, 무정형의 비구조적 특징, 검소함과 절제의 반꾸밈과 무표색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조형적 특징들의 미적가치는

<표 2> 불이 사상의 영향을 받은 전통복식의 조형적 특징과 미적가치



\* 굵은 선으로 된 화살표는 연관성이 높은 연결임.

‘비움의 미’, ‘감춤의 미’, ‘자연의 미’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고찰한 불이의 사상, 그리고 그에 영향을 받은 전통복식의 조형적 특징과 미적가치를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뒤르케임(Durkheim)은 종교적 믿음과 관행의 뿌리는 바로 사회 그 자체의 짜임새 속에, 그리고 인간 간의 상호 관계라는 본성 속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7)</sup> 종교적 상징의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이것 속에는 어떤 기본적인 것이 내재 되는데, 이로써 이 기본 요소는 인간 사회가 지속되는 한 살아 남게 된다.<sup>28)</sup> 그러므로 우리의 복식문화가 서구화 되었지만 이러한 한국 전통의 미학은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뿌리 깊이 잠재하면서 우리의 복식 문화 전반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V. 결론

우리 민족의 종교는 종교이자 철학, 문화 그 자체로서 예술과 미학은 물론 사회구조를 비롯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쳐왔고 복식 양식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 종교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에 관한 추상적인 사상체계이며, 복식은 그 기원부터 종교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종교 다원화의 특징을 보여왔지만, 불교는 우리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로서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약 1600여 년 동안 한국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한 불교를 제외하고 한국의 미를 논하는 것은 핵심을 간과하는 것이다. 특히 불교의 여러 사상 중 우리의 전통 미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것은 불이 사상이다. 이 원상대의 미적가치를 부정하는 중도론과 유무불이의 공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불이 사상은 오랜 시간 동안 복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인체를 드러내지 않는 무정형의 비구조적인 형태와 검소함과 절제된 형식으로 나타났다.

불이사상에 영향을 받은 한국의 전통복식에는 ‘비움의 미’가 나타나는데 이는 동아시아 복식의 독특한 미적가치로 형태를 취하지 않고 우주와의 교류를 위해 비워 놓는 초 공간성이며, 탈기교의 기법

이다. 종교의 영향을 받은 복식의 보편적 특성인 ‘감춤의 미’는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자연과 동화되고 인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이다. ‘자연의 미’ 또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통복식에 나타난 트레이퍼리의 특성과 감성의 절제에 따른 우리 전통 복식의 중요한 특징이다.

세계화의 추세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동질화 시켜왔고, 근대화의 물결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복식을 서구화 시켰지만 동서양의 내면에 각기 자리 잡고 있는 이념적인 뿌리는 각자의 내면에 유유히 흐르고 있다. 무(無)에서 출발하여 모호함과 숨음의 사상이 내포된 우리의 전통미학은 기독교와 서구철학을 기반으로 한 서구의 미학과 대조를 이룬다. 서구의 미학은 복식과 인체의 맞음새를 중요시 하여 구조적이고 명료하며 형식적인 복식 형태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서양과는 다른 우리 전통의 불이 사상은 결코 서구의 확장에도 소멸될 수 없는 것으로, 종교적 이념에 바탕을 둔 한국의 전통이자 정체성인 것이다.

## 참고문헌

- 1) Tillich, Paul (1948). *The protestant er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17.
- 2) 서광선 (1975). *종교와 인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17.
- 3)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1: 복식미를 보는 시각*. 서울: 교문사, p. 18.
- 4) 윤재근 (2006). *東洋의 本來美學*. 서울: 나들목, p. 67.
- 5) 松本史朗 (1994). *연기와 공. 慧諫(역)*. 서울: 운주사, p. 303.
- 6) 윤재근. *앞의 책*, p. 68.
- 7) 이찬훈 (2002). *둘이 아닌 세상: 니체에서 맑스로 맑스에서 불이로*. 서울: 이후, p. 182.
- 8) 임영자 (1989). *한국 종교복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 (2004). *한국의 불교 복식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146, 148, 149.  
\_\_\_\_ (2004). *한국 종교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14.
- 9) Hamilton, J. A. (1988). *Dress as a culture sub-system: A unifying metatheory for clothing and textiles*. *C.T.R.J.* 6(1), pp. 1-7.
- 10) 김민자. *앞의 책*, pp. 114-115.
- 11) 김해연 (2003). *동서종교문화교류사*. 서울: 성지출판사, p. 297.
- 12) Ninian Smart (2000). *종교와 세계관*. 김윤성(역), 서

- 울: 이학사, pp. 88-89.
- 13) 김종서 (2005). *종교사회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174-175.
  - 14) 정진홍 (1995). *종교문화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청년사, pp. 121-122.
  - 15) 윤재근. *앞의 책*, p. 68.
  - 16) 윤재근 (1993). *동양의 미학*. 서울: 도서출판 동지, pp. 72-73.
  - 17) 홍윤식 (1986). *韓國의 佛敎美術*. 서울: 대원정사, p. 218.
  - 18) 조요한 (1999). *韓國美의 照明*. 서울: 열화당, p. 95.
  - 19) 이찬훈. *앞의 책*, p. 181.
  - 20) 원효 (2002). *金剛三昧經論-상*(한국불교전서 제 1권). 조용길(역), 동국대학교 출판부, p. 613.
  - 21) 김용표 (2002). *불교와 종교철학-공사상으로 본 세계 종교*. 동국대학교 출판부, p. 125.
  - 22) 허균 (2000).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서울: 들베게, p. 235.
  - 23) 이찬훈. *앞의 책*, p. 171.
  - 24) 윤재근 (2006). *앞의 책*, p. 69.
  - 25) 김용덕 (2002). *불교와 민속과 환경의 생태론적 연구. 민속과 환경*. 서울: 민속원, p. 158.
  - 26) 위의 책, p. 146.
  - 27) Durkheim, Emile (1915).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A study in religious sociology*. London: Allen and Unwin, pp. 416-419.
  - 28) 김성건 (1991). *종교와 이데올로기*. 서울: 민영사, p. 10.